40절의 숨겨진 역사 - 제33편

에스겔 제14편

Jeff Pippenger
2026-10-27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셋의 계보와 대조된다.

선한 라멕과 악한 라멕

두 계보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대조를 나타내며, 두 계보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대조되는 이 계보들에서 상호 대응하는 '후손 상징'을 나타낸다. 가인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는 부류를 대표한다.

> 그가 이르시되,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은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가 땅을 갈아도 이제부터는 땅이 그 힘을 네게 내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땅에서 도망하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주께 아뢰되, 제 형벌이 너무 무거워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셨으니, 제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고 땅에서 도망하며 떠도는 자가 되리이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이니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어, 누구든지 그를 만나 죽이는 일이 없게 하셨느니라. 가인이 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창세기 4:10–16.

가인은 선을 행하고자 힘쓰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비참한 처지에만 몰두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한 부류를 대표한다.

>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어두워졌더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어두워졌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로 향하리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5–7.

여섯 번의 죽음—세 알파와 세 오메가

지난 글들에서 우리는 에녹을 첫째 천사의 상징으로, 라멕을 둘째 천사의 상징으로, 므두셀라를 밤중의 외침으로, 노아를 셋째 천사로 확인하였다.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은 칠백칠십칠 세에 죽었는데, 이는 므두셀라가 죽었던 홍수의 해보다 오 년 전이었다. 라멕이 죽은 지 오 년 뒤에 므두셀라가 죽었으므로, 이들의 죽음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예표한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지 일 점 오 년(1.5) 뒤에는 어린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의 죽음이 뒤따랐다.

> 또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 성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2.

알파에 해당하는 에스겔의 아내와 라멕의 죽음은 오메가에 해당하는 예루살렘과 므두셀라의 죽음과 연결되며, 요한네스 팔라이올로고스의 죽음을 예표하였다.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 위에서 죽음을 맞았다. 라멕의 연대선은 5년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며, 그 끝에는 동물들이 이동하는 7일의 기간이 있다. 동로마의 연대선은 5년을 나타내며, 그 전체 5년 안에 포함된 4년의 기간도 나타낸다. 에스겔의 연대선은 2년과 1년 반(1.5년)을 모두 나타낸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에스겔의 연대선은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에 의해 이루어진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과 대응한다.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연대선에서는 4년의 기간과 3년 반의 기간이 모두 도출된다. 이 네 개의 상징적 연대선은 각각 그 예언적 증언 속에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상징적 기간을 제시하였다.

라멕과 요한네스 팔라이올로고스, 에스겔의 아내는 오메가에 해당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한 기간의 알파 이정표를 나타낸다. 세 계열 가운데 두 계열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인물의 죽음으로 끝나는 포위전을 나타낸다. 나머지 한 계열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오메가의 대응 관계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예루살렘의 멸망 및 콘스탄티노플 성벽의 파괴와 나란히 놓인다. 세 가지 오메가 상징은 모두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노아의 방주라는 증거에는 포위가 없었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적재용 경사로를 공성용 경사로의 예표로 본다면, 죽음에 관한 세 증거 모두가 포위를 가리킨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66년부터 70년까지의 연대선에서는 66년에 케스티우스에 의한 포위가 있었고, 70년에 티투스에 의한 두 번째 포위가 있었다.

4년

1453년 콘스탄티노플 포위전으로 끝나는 4년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슬람에 관한 "다섯 달" 예언에서 두 번째 4년 기간을 나타낸다. "다섯 달" 예언에서 첫 번째 4년 기간은 니코메디아 포위전 당시인 1333년부터 1337년까지였다. 그 포위전은 또한 1299년 7월 27일부터 시작된 38년의 끝을 나타냈다. 예루살렘의 두 차례 멸망, 콘스탄티노플의 한 차례 멸망, 대홍수, 니코메디아 포위전은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전 198년까지 이어진 파니움 전역에 대한 다섯 증인이며, 그 전역은 여섯 번째 증인이 될 것이고, 이 밖에도 다른 증인들이 여럿 있다.

예루살렘의 두 차례 멸망은 "선 위에 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쉽게 정렬된다. 홍수와 동로마의 역사선은 서로 대응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죽음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파니움 전역은 특히 에스겔의 기원전 587년 역사선과 정렬되는데, 두 포위 기간이 모두 2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파니움은 다니엘서 11장 15절에 나타나며, 이 절은 머지않아 도래할 일요일 법령을 나타내는 16절에 앞서는데, 이는 기원전 586년과 기원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 그러했던 것과 같다. 파니움 전투와 시돈 포위전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이 역사선들 각각을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이끈다.

하나의 표징

예루살렘이 두 차례 멸망할 당시의 포위전에서 첫 번째 예언적 이정표는 표징을 나타낸다. 66년의 케스티우스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모두 알파 표징이었다. 라멕 역시 첫 번째 이정표이므로, 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할 때 라멕 또한 표징이다. 그의 나이 777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 승리한 교회의 표징을 나타낸다.

> 또한 내가 나의 안식일들을 그들에게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20:12.

300년

셋의 계보에서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으며 하늘로 옮겨졌다. '300'은 1843년 선구자 도표 300장과 이에 상응하는 밀러파 설교자 300명, 그리고 300명으로 이루어진 기드온의 군대를 상징한다. 에녹과 밀러파 설교자들,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 300명은 십사만 사천 명을 표상한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두 마리씩 서로 묶었으며, 이로써 150이라는 수를 나타내고 서로 묶여 총 300을 이루는 상징을 제시했다.

>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잡고 횃불을 가져다가 꼬리와 꼬리를 마주 대고 두 꼬리 사이에 횃불 하나씩을 달았다. 횃불에 불을 붙인 뒤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 놓아,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않은 곡식뿐 아니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까지 태워 버렸다. 사사기 15:4, 5.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슬람에 관한 두 개의 다섯 달 예언은 "불"과 "꼬리"를 이슬람의 특징으로 제시한다.

>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이같이 보았으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는 그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기 때문이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를 끼치더라. 요한계시록 9:17–19.

이슬람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 모두에 있다.

> 또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었고 그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요한계시록 9:10, 11.

고통을 주고 죽이는 이슬람의 권세는 그들의 입과 꼬리 모두에 있으며, 그 권세는 그들의 입과 꼬리에서 나온다.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라. 장로와 존귀한 자는 머리요,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라. 이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게 하며,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하기 때문이라. 이사야 9:14–16.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예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계보에서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이슬람에서 거짓말을 가르쳤던 옛 선지자는 무함마드이다. 코란은 이슬람의 메뚜기들을 움직이는 거짓말을 나타내며, 장로와 존귀한 자는 그들의 정치 지도부이다. 이슬람은 코란의 거짓말(꼬리)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 통치 세력(입)의 지휘를 받는다. 삼손의 여우 삼백 마리는 각각 다섯 달에 해당하는 두 무리로 나뉘었으며, 이 두 무리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괴롭히고 죽이게 되어 있다.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세 천사의 예언적 특성을 지닌다. 첫 번째와 마지막은 불의 유형이다. "유황"이라는 말의 어근은 신적인 섬광을 나타낸다. 불은 기별의 상징이며, 연기는 그 기별의 결과이고, 유황은 그 기별이 종교적 기별임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참된 기별을 위조한 것이다. 철제 흉갑은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표상된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흉패를 위조한 것이다. 대제사장의 흉패는 십사만 사천 명을 열두 개의 인간 보석으로 표상하며, 이 보석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표상되는 신성과 결합되어 있다. 고대의 청옥은 짙은 청흑색 또는 거무스름한 자주색이었다. 이슬람의 흉갑에 있는 청옥은 이슬람의 입(국가)과 꼬리(교회)에서 나오는 연기에 상응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후 하늘로 옮겨진 일은 숫자 300을 1798년에 도래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한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0년 8월 11일에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 달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 장에 나오는 다섯 달의 두 기간은 한 선 위에 다른 선을 겹쳐 놓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다. 5절과 10절에 나오는 다섯 달이 각각 150년에 해당하는 별개의 두 기간이라는 사실은 최근에야 인식되었다. 그 진리가 인식되었을 때, 삼손은 여우들을 서로 묶어 150쌍으로 만들었다.

삼손("태양"이라는 뜻)의 예언적 역사에서, 니느웨 전투로 표상된 열쇠로 무저갱이 열렸을 때 그곳에서 올라온 "연기"는 어둠으로 태양을 가렸다. 밀러파 신도들은 이슬람의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태양을 가린 것을, 태양(삼손)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진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였다. 삼손의 증언과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슬람 사이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연관성이 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숫자 3은 혼인 잔치의 하객들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던 사흘이라는 기간에 나타난다. 삼손은 세 여인, 곧 딤나 출신의 아내와 창녀와 들릴라와 관계를 맺는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세 번 임한다. 곧 사자를 만났을 때, 아스글론에서, 그리고 레히에서이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세 차례 거짓 대답을 한 뒤에 진실을 말한다. 숫자 3은 신격을 상징하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위조된 신격과 승리한 교회의 삼중적 구성도 상징한다.

삼십은 제사장의 수이며, 삼손의 혼인 잔치에 데려온 동무도 삼십 명이었다. 이어 삼손은 손님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베옷 삼십 벌과 의복 삼십 벌을 주겠다고 내기를 걸었다. 배신으로 자신의 수수께끼가 누설되자, 삼손은 내기에 진 대가를 치르기 위해 아스글론 사람 삼십 명을 죽였다. 삼십이라는 수는 300의 예언적 십일조에 해당하며, 에녹이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일과 상응하여, 삼손이 붙잡아 백오십 쌍으로 묶은 삼백 마리의

여우는 요한계시록 구장에 나오는 다섯 달에 관한 두 예언과 연결된다. 이 두 예언은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으로 서로 연결된다. 삼백은 삼천의 예언적 십일조이며, 삼천은 오순절에 회심한 이들로 표상되는 의로운 남은 자이든, 금송아지 반역 때 레위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로 표상되는 불의한 남은 자이든, 남은 자를 나타낸다.

금송아지 반역 사건과 오순절에 회심한 이들은 모두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시점에서 예언적으로 서로 대응한다. 하나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나온 남은 무리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우리 밖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나온 남은 무리를 나타낸다. 삼손의 증언에서 처음 언급되는 삼천 명은 블레셋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삼손을 사로잡았던 유대인들이며,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삼천 명은 블레셋 사람들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며, 그 후에는 아직 바벨론에 있는 제십일시의 일꾼들에게로 이어진다. 삼손의 증언은 삼천 명이 남은 무리를 상징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심판 과정의 순서도 뒷받침한다. 에녹은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남은 무리를 나타낸다. 그 남은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와 대조되는 십사만 사천 명이다.

300의 십일조는 30으로, 이는 제사장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30의 십일조인 숫자 3은 신격뿐 아니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위조된 신격도 나타낸다. 또한 3은 서른 살에 통치하기 시작한 다윗 왕과 서른 살에 봉사를 시작한 제사장 요셉, 그리고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30년째에 22년간의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에스겔로 표상되는 승리한 교회의 삼중 구분을 나타낸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서른 살이었을 것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상되는 세 상징적 존재는 각각 포위가 시작되는 이정표에서 제칠일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죽음에 관한 두 증거는 6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부차적 증거와 더불어, 포위의 이정표가 '표징'임을 입증하는 세 증거를 이룬다.

전환의 이정표

포위가 시작될 때, 라멕으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삼중적 승리 교회가 인침을 받는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바로 그 동일한 이정표에서 이전 언약 백성이 완전히 제쳐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 이정표는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이는 전투 교회가 승리 교회로 전환하여 일곱에 속한 여덟째 교회가 되는 것으로도 묘사된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셋째 천사의 밀러파 역사에서, 그 이정표는 제임스 화잇과 엘렌 화잇이 모두 그 운동을 라오디게아적 운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1856년의 시기를 나타냈다. 1856년에 빌라델비아적 밀러파 운동은 라오디게아적 밀러파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7년 후, 그 운동이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되면서 라오디게아적 밀러파 운동은 끝났다.

그 이정표는 서머나 교회가 끝나고 버가모 교회가 시작된 313년으로도 예표된다. 이 두 전환을 함께 보면, 1856년에 의로운 빌라델비아에서 불의한 라오디게아로 전환된 것은 313년에 의로운 서머나에서 불의한 버가모로 전환된 것과 상응하며, 이 전환점은 또한 그 이정표가 표징임을 밝혀 준다. 여러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포위는 하나의 표징과 함께

시작된다. 십사만 사천 명으로 이루어진 셋째 천사의 운동이 라멕이 죽을 때 인침을 받으면, 그들은 기치로 높이 들려지면서 인침을 받고 완전히 연합되는데, 이는 포위의 예언적 구조에서 첫 번째 이정표가 표징이기 때문이다.

요안니스 팔레올로고스의 죽음은 이슬람의 이정표, 곧 동로마가 이슬람에 강제로 예속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은 바벨론과 로마라는 두 증인을 제시한다. 에스겔의 1년 반이라는 기간은 북방 왕의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경고의 기별을 보고 듣기를 거부한 라오디게아인들을 상징한다. 케스티우스의 표징은 북방 왕에게서 벗어나는 빌라델비아인들을 상징한다. 이 두 표징은 라멕의 777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예언적 기별을 다룬다. 줄에 줄을 더하여 살펴보면, 포위 때 한 부류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부류는 북방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요안니스 팔레올로고스의 죽음은 라멕으로 표상되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 이정표에서 이슬람이 맡는 역할을 밝혀 줌으로써 외적 예언 기별을 표상한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 때 탈출하는 자들과 사로잡히는 자들은 품성이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포위에 관한 예언적 기간의 알파 이정표임을 강조한다. 이 두 부류는 두 라멕으로 표상된다. 한 부류는 내슈빌에 경고를 전하고, 다른 부류는 경고하기를 거부한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일곱 배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인을 만나는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창세기 4:15.

반역의 표

가인은 자신의 반역의 표를 받았다. 그의 반역의 표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곱 배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류를 향한 경고로 이해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를 베푸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언적 의미에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반역에 대한 경고의 표와 상응한다. 오메가의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알파의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반역의 표로 예표되었다. 가인의 표에 내포된 경고는 가인과 같은 품성을 드러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으리라는 것이다. 가인에게 찍힌 표는 짐승의 표와 상응하며, 그 경고는 자신의 형제를 살해한 가인의 반역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강조하는데, 이 반역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된다. 가인의 행동을 본받는 것은 가인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가인에게는 일곱 배의 집행 심판이 내려졌으며, 가인으로부터 여섯 번째 세대에 해당하는 라멕은 자신이 아버지의 죄를 되풀이했지만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은 칠십의 일곱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일곱 배로 보복할진대, 진실로 라멕을 위하여는 일흔일곱 배로 보복하리로다. 창세기 4:23, 24.

앞 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가 곱셈의 형태로 제시되는 단 세 사례 가운데 첫 번째이다. 마지막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같다.

>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마태복음 18:21, 22.

70에 7을 곱하면 490이며, 성경의 역사에는 490년의 기간이 세 차례 있고, 각 기간은 은혜의 기간을 나타낸다. 성소와 왕들과 군대에 대하여 각각 490년의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왕들에게 해당하는 기간은 기원전 1097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에 시작되어, 기원전 607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포위 공격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 이어졌다.

성소에 주어진 490년의 유예 기간은 기원전 1006년 솔로몬 성전의 봉헌으로 시작되어 기원전 516년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성전의 봉헌까지 이어졌다. 군대의 경우, 그 490년은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후 34년까지였다.

가인에게 주어진 일곱 배의 심판을 경고하는 기별과 표에서 시작하여 라멕의 일흔 번씩 일곱 배에 이르는 과정은 상징적인 사백구십 년의 유예 기간을 나타낸다. 가인의 표가 상징하는 반역은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동기와 부합한다.

>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심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함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6:5–7.

가인의 여섯째 세대에 속한 라멕은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과 대조되는, 뚜렷이 구별된 반역자들의 한 부류로 제시된다. 두 라멕의 증언은 모두 은혜의 시기의 종결을 가리킨다. 하나는 490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하나는 그의 죽음으로 이를 나타낸다. 두 증언에는 모두 승리한 교회의 삼중적 구성과 직접 연관된 수적 상징이 담겨 있다. 가인의 계보에 속한 라멕은 왕들과 성소와 군대에 각각 해당하는 세 개의 490년 기간과 상응하며,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위한 일곱이라는 수의 인을 담고 있다.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 가운데 둘째 천사이며, 가인의 계보에 속한 라멕은 짐승과 그 우상과 표와 그 이름의 수에 관한 경고를 전하는 셋째 천사이다. 요한계시록 14장 9/11절은 가인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 준다.

>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격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부은 포도주라.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이 받는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9–11.

요한계시록 15:2에는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이 표상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다:

>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5:2.

셋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죽음으로 닫힌 문을 나타낸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49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통해 닫힌 문을 나타낸다. 가인의 표는 세 가지 주요한 예언적 특성을 드러내는 품성에 대한 경고로 여겨져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했으며, 질투에 찬 분노를 드러내어 자기 동생을 살해했고, 셋째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가인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십계명의 첫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을 범하였으며, 둘째 돌판은 인류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의 반역의 표는 그가 회개하지 않는 불법한 자임을 나타냈다. 가인과 라멕은 곧 도래할 일요일 법령 때 셋째 천사의 닫힌 문을 나타낸다.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는 에녹으로 표상되는 첫째 천사의 도래로 시작되는 역사를 표상한다. 이 역사에서는 라멕이 둘째 천사로 도래하고, 므두셀라가 라멕의 둘째 천사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는 밤중의 외침으로 도래하며, 그다음 셋째 천사인 노아가 홍수 때의 닫힌 문을 나타낸다.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었으며, 이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문이 닫히기 전의 상징적 5년을 가리킨다. 라멕이 777세에 죽는 바로 그때에 승리한 교회의 인침이 완성된다. 그 후 방주의 문이 초자연적으로 닫히기 7일 전에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므두셀라가 죽은 날은 그 이레 가운데 첫날이었다. 문이 닫히기 전의 마지막 경고는 동물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광경과 더불어, 지금까지 죽음을 맞은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이의 생애 내내 선포되어 온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전해진 이중의 기별이었다. 그 예언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라는 뜻을 지닌 므두셀라의 이름에 담겨 있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선포한 예언이 성취되어 므두셀라가 죽었을 때 시작된 동물들의 7일간의 이동이 표상하듯이, 인류를 위한 최후의 경고 기별은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별이어야 한다. 동물들이 이동한 7일은 므두셀라의 죽음과 동물들의 이동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별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기별임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작을 통해 끝을 설명하시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에게 4절의 두 번째 음성이 합류하는데, 이는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합류했던 것과 같다. 최후의 경고 기별은 언제나 내적인 기별과 외적인 기별로 제시되며,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과 인들 사이의 예언적 관계로 표상된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최후의 경고 기별은 북방과 동방의 기별이다. 므두셀라와 이동하는 동물들은 노아 시대에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최후의 경고 기별이었다.

777이라는 표징을 지닌 라멕의 죽음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때인 포위 공격의 시작 시점에 상응한다. 바로 그 시점에 셋의 계보로 표상되는 신실한 자들이 인침을 받으며, 가인의 계보로 표상되는 자들도 바로 그 시점에 표를 받는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일곱째였으며, 마지막 세대와 첫 세대가 모두 숫자 8로 표상되는 시점에서 끝나는 한 기간의 알파 이정표를 표상한다. 두 라멕은 모두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을 가리키며, 라멕의 죽음은 포위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에 닫힌 은혜의 문을 표상한다.

에녹은 예언적 역사의 알파였으며,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예언적 역사의 오메가를 가리켜야 한다. 그 오메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건너간 여덟 사람으로 표상된다. 에녹과 그 여덟 사람은 새 땅에 도착하기까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옛 세상은 동물들이 이동하던 7일 동안에 끝났고, 새 세상은 비가 내리지 않는 7일로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 17일부터 다섯 달 동안, 곧 다섯 달이 끝나는 17일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실 때까지 줄곧 비만 내렸다.

다섯 달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 달에 대한 두 증인이 있으며, 이 장에는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기간 예언이 있다. 첫 번째 다섯 달은 5절에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 다섯 달은 10절에 있으며, 391년 15일은 15절에 나온다. 5절, 10절, 15절은 예언 기간의 시작 부분에 있는 다섯 달에 대한 두 증인을 통해 이슬람에 관한 기간 예언을 밝혀 준다. 5절과 10절은 모두 다섯 달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므로, 줄에 줄을 더하면 5절과 10절의 합은 15가 된다. 따라서 첫 번째 다섯 달은 15이며, 391년 15일은 15절에 제시되어 있다. 5절, 10절, 15절의 순서와 구조는 두 개의 15를 가리키며, 합이 15가 되는 첫 두 절에는 150년의 기간 예언이 두 개 있다.

15절은 391년 15일이라는 기간에 관한 예언을 제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구절에 열다섯이라는 수를 엮어 넣으셨으며, 바로 그 구절들에 제시된 예언적 시간을 사용하여 5절과 10절을 더함으로써 나타나는 숫자 15를 구별하셨는데, 이는 이를 15절과 나란히 놓을 때 열다섯이 두 번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연결된 세 예언을 모두 15일로 끝맺으셨다.

이 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627년의 니네베 전투이며, 그로부터 5년 뒤인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첫 번째 5개월 예언이 시작된다. 무함마드가 죽은 지 10년 뒤, 페르시아와 로마라는 두 강국이 모두 패배하리라는 그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군대가 궤멸되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역사의 흐름은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 벌어진 니네베 전투에서 시작된다. 그로부터 5년 뒤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5절의 150년이 시작된다. 다시 10년 뒤인 642년에 페르시아는 나하반드 전투에서 패배한다. 이슬람은 나하반드 전투를 "승리 중의 승리"라고 불렀다. 요한계시록 9장의 처음 15년은 5년과 그 뒤를 잇는 10년으로 이루어진 기간을 나타낸다. 마지막 기간 예언은 1840년 8월 11일에 끝났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 조시아 리치는 오스만 제국의 패권 종식에 관해 수정한 자신의 예측을 발표하였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슬람의 마지막 15일은 조시아 리치의 활동에 의해 5일과 그 뒤를 잇는 10일로 나뉘는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